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Activation Plan of Museum Educa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김수지¹, 김연수²

Kim SuJi¹, Kim Yeon-Su^{2*}

요약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과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그리고 이주민 가족인 노동자와 유학생을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다문화가정은 사회와의 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속의 아동들 역시 문화의 차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이들 가정의 아동들은 미래에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단순하고 평면적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소속감을 키워나가며 심적 갈등을 순화시킬 수 있는 정서적, 심리적 자존심을 가질 수 있다.

핵심어: 다문화가정, 박물관 교육, 다문화 아동, 교육 프로그램

Abstract

Multicultural families can be categorized as including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 men, immigrant male families married to Korean women, and migrant workers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 this situation, multicultural families have difficulties in convergence with society, and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lso face identity confusion due to cultural differences. Children with low economic and social backgrounds are likely to become big social problems in the future. Educational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re simple and flat, but th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understand Korea in a more diverse and multidimensional way. Through this, we can hav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elf-esteem that can enhance the sense of belonging and refine mental conflict.

Keyword: Multicultural Family, Museum Education, Multicultural Children, Education Program

1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
e-mail: suji.kim@kookmin.ac.kr

2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
e-mail: yeonsu.kim@kookmin.ac.kr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October 31.2016), Review (December 10.2016), Accepted(December 31.2016)

1. 서론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과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그리고 이주민 가족인 노동자와 유학생을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다문화가정의 개념이 좁아져 한국 남성과 저임금 국가 출신 여성간의 매매혼적 성격의 결혼으로 형성된 가정을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다문화가정은 사회와의 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속의 아동들 역시 문화의 차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이들 가정의 아동들은 결국 미래 사회에서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현재 긴급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센터이며 사회교육기관으로써 대중에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박물관이라는 시설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박물관의 역할에 주목하여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가정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다문화가정에 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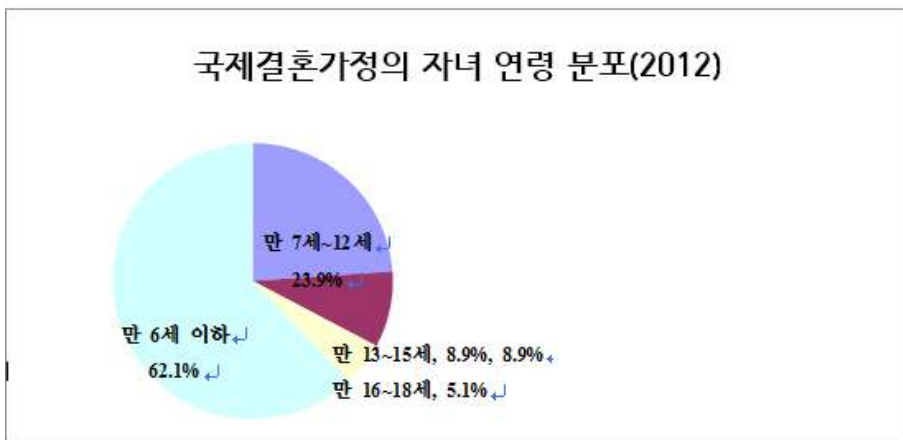
2.1.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특성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코리안 드림 현상의 대두로 외국인들의 입국 증가, 노임단가의 급격한 상승과 3D업종에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내국인 노동력 공급 부족, 중국, 러시아와 수교에 따라 중국 동포들의 입국 증가, 지자체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운동' 영향, 정보화, 세계화에 따른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변화, 편중된 성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 증가 등의 원인 때문이다.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뉜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고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나중에 국가 간의 교류역할을 할 수 있는 이중 언어와 다문화적 감수성을 가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면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가정불화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의 해체로 이어져 사회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2.2.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문제점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적 문제점은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타 문화를 선택의 개념이 아닌 수용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겪는 혼란이다. 둘째, 다른 신체적인 특징으로 언어 능력 향상에 대한 어려움, 자아 정체성 형성 확립의 문제, 학교생활 부적응의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아동들 자체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포용력이 낮아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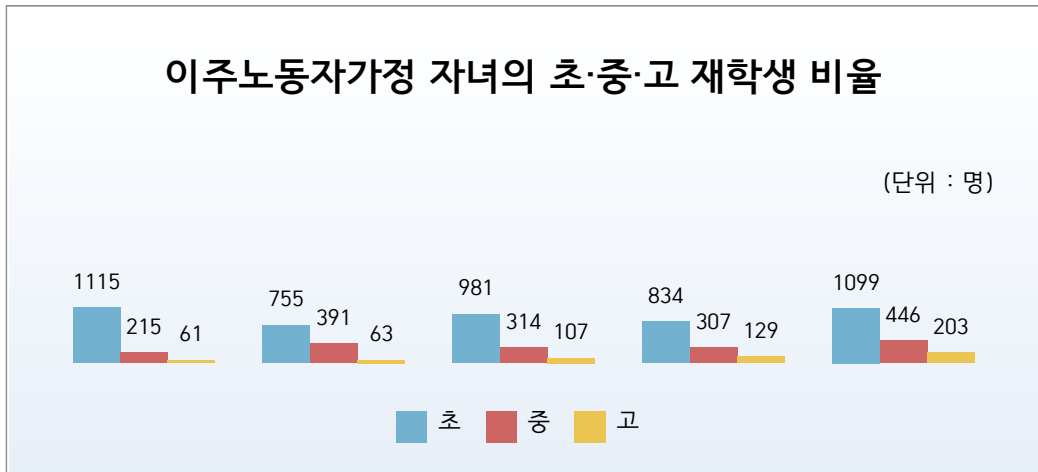
[그림 1]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현황

[Fig 1] Status of married immigrant and naturalized children



[그림 2]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초중고 재학생 비율

[Fig 2] Percentage of childre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f intranational marriage family children



[그림 3] 이주노동자가정 자녀의 초·중·고 재학생 비율

[Fig 3] Percentage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f migrant workers' family children

[표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집단 따돌림 이유

[Table 1] Reasons for bullying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	비율(%)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34.1%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20.7%
특별한 이유 없이	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13.4%
외모가 달라서	4.9%
기타	22.0%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만 6세 이하 아동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을 우리 사회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국내 박물관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민족적 정체성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즉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동일한 문화를 공유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대한 동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이라는 문화예술 공간에서의 교육을 통해 우리 민족의 민족성 형성의 바탕이 된 전통문화에 대해 이해시킬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이루어진 국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국립 중앙 박물관

국립 중앙 박물관에서는 어린이와 가족, 성인, 군인,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정으로 나누어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라는 코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타문화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표 2]국립중앙 박물관 프로그램

[Table 2] National museum of Korea program

프로그램명	참가자	기간	내용
MAYA-2012 박물관 다문화 아카데미	다문화가족 내국민가족 외국인	10월13일 토요일 (10:00~12:00) 10월 27일 토요일 (14:00~16:00)	주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와 떠나는 세계문화여행 - 마야전시를 해설과 함께 진행 - 멕시코 식당과 연계, 멕시코 차와 디저트 시음 진행 - 마야 토기와 비교하여 만들어보는 우리문화체험
2012 터키이야기를 들으며, 터키 차와 디저트를 맛보다.	주한 외국인 내국인	7월 19일부터 8월 25일 (10:00~13:00) 총 8회	터키에 관한 역사와 문화 강의 터키 차와 디저트 시연 및 시음 터키/우리문화 체험 - 터키의 문양을 담은 장식품 만들기 - 나만의 자개문양 장식품 만들기 한국의 전통의상, 장신구 체험 - 족두리, 갓, 조바위, 한복 등 착용하고 사진 찍기
2012 박물관에서 체험하는 여러 나라 문화재	외국인 다문화가족 40명	3월~11월 매주 수요일 (15:00~17:00) 30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기획전, 특별전시와 연계한 체험 - 꿈과 소망을 담은 용 그림 그리기
2011 박물관에서 체험하는 아시아 문화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인 여성	4월1일부터 12월20일 매주 금요일 (10:00~12:00)	유물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동물들의 상징과 의미를 알아보고, 동물모양 도자기 만들기
2010 한 지붕 속 다문화	다문화학생 초등학교 1~3학년 (15명)	5월8일 토요일 (13:00~15:00)	나라의 문화를 연극으로 배워보기 (우즈베키스탄 전시실 연계) 우즈베키스탄 전시실 자율적 관람 다문화 친구 15명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표 3] 국립민속 박물관 프로그램
[Table 3]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program

프로그램명	대 상	기 간	내 용
2013 우리 민속 나눔	외국인 유학생	1월1일 부터 11월30일	민속소품 만들기 - 한지공예: 사각필통, 육각필통, 컵 받침, 보석 상자 등 규방공예: 전통문양 동전지갑, 파우치 등 우리가락과 춤사위 배우기, 사물놀이 이론과 장단 배우기 탈춤 기본동작 익히기 스크린 속 숨은 우리민속 찾기 (의생활 편) 한국 전통 복식에 대한 이론 강의 및 동영상 시청 두루 주머니에 금박 찍기 체험 우리 무술 배우기, 태권 기본동작 익히기 외국 부인 대상 민속 강의 및 문화탐방 국민 민속 박물관 소개 민속강의: 한국인의 의, 식, 주(택1)
2012 외국인과 함께하는 우리민속 나눔 교실	국내 거주 외국인	3월1일 부터 11월30일	스크린 속 숨은 우리민속 찾기(의생활 편) 의생활 관련 영화·PPT 등 스크린을 활용한 민속 강의 남·여 한복 입어보기 체험 실기체험: 의생활 관련 두루주머니 만들기 민속소품 만들기 한지공예: 한지로 사각필통, 육각 필통, 소반 만들기 등 규방공예: 전통문양 동전지갑, 파우치 만들기 등 우리가락과 춤사위 배우기, 사물놀이 이론과 장단 배우기 탈춤 기본동작 익히기
2012 외국인 전통연희교실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3월1일 부터 11월30일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연희를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통연희교실을 마련하였다. 외국인 선호도를 감안하여 4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강좌 수료 후에 발표회 개최를 통해 강좌의 집중도 및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 전통연희 공연, 동영상 시청, 이론 강의 - 물놀이, 탈춤, 태권 중 택1하여 연속 8회 강좌 강좌 수료 후 박물관에서 그룹별 발표회 개최 장구 관련 동영상 및 이론 강의/강습 시작 연속 8회 강좌 강좌 수료 후 박물관에서 단체 참가자들과 함께 발표회 개최
2011 외국인과 함께하는 우리민속 나눔 교실	외국인 단체	3월1일 부터 11월30일	스크린 속 숨은 우리 민속 찾기“한국 의생활편” 의생활 관련 영화·PPT 등 스크린을 활용한 민속이야기 전시실 관람하며 관련 유물 찾기 활동 및 활동지 작성 실기 체험: 의생활 관련 복주머니 만들기 한지공예: 한지로 사각 필통, 접시 2중 세트, 보석상자, 스탠드 만들기 규방공예: 전통문양 동전지갑, 파우치 만들기 소원 담아 솟대 만들기 우리가락과 춤사위 배우기, 사물놀이 이론과 장단 배우기 탈춤 기본동작 익히기

3.2. 국립 민속 박물관

국립 민속 박물관은 표3과 같이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가족, 외국인, 전문인, 농어촌과 장애인, 저소득층으로 나누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에게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들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4. 지속적인 박물관과 학교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4.1. 방학을 이용한 정기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여름과 겨울에 시행되는 적성 프로그램 항목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목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정기교육과정으로 실시하여 아동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다문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 프로그램이란 아동 교육기관의 단계별 교육 과정을 다문화 교육에 접목시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일반 아동들이 서로 공유 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벗어날 수 있는 정서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방학 중 다문화 프로그램의 진행 장소는 학교와 박물관, 그리고 제 3의 장소로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이 있는 지역문화 복지시설을 활용한다. 지역 문화 복지시설로는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있다[4].

4.2. 학교 교육 연계 프로그램 강화

박물관이 새로운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현 시대에 박물관과 학교 양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하며, 박물관의 공공 교육개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학교 교육 과정과 관련된 다문화 정보를 보다 포괄적이고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다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박물관과 학교는 협력적인 교육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각 학교별로 학교 특성에 맞는 다문화 교육 전문 강사와 교육자를 양성하며 박물관에도 다문화 교육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 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이렇게 된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학교와 관련된 훌륭한 교육의 공간으로서 박물관을 강화할 수 있으며, 결국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4.3. 전문 교육 인력 배치

교육부는 다문화 장기 계획으로서 국가적, 교육적,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적 차원 계획으로는 다문화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다문화 가정 전문 연구 및 정책 실행 기구 마련, 다문화 가정 구성원 사회 적응 및 교육정책 마련이 있으며, 교육적 차원 계획으로는 다문화 이해 교육과정 도입, 다문화 가정 학습자 교재 개발, 다문화 가정 이해를 위한 교사 연수 및 자료 개발, 교육대학 교육 과정에 다문화 교육 포함 등이 있다. 사회적 차원 계획으로는 평생 학습과 연계된 다문화 지원 교육, 취학 및 입학 전 예비 학교 설립 등이 있다[5].

그러나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나 강사의 교육 연수 과정에도 다문화에 대한 교육 비중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도 될 정도로 그 비중은 매우 낮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교육지원 계획이 강화되어야 한다. 각 단계별 교육에 대한 전문가와 교육자의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전문 교육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꾸준한 인력양성을 진행되어 각 학교에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을 다문화교육 인력으로 양성한다면 이주여성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한국사회 적응문제, 언어사용의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 속의 학부모인 이주여성들을 다문화 교육 인력으로 양성한다면 다양한 정보 수집과 체험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다.

4.4.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찾아가는 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은 문화소외지역인 농촌지역의 보건소 및 마을회관에서 작품을 관람하게 하고 직접 만져보며 오감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듯 찾아가는 박물관의 범위를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으로 확장하여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신선한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한다.

4.5.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우리 민족성 형성의 바탕이 된 전문화에 대하여 이해시키고 경험하게 하여야 하면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해 본다[6,7].

(1) 음식 분야

(가) 기초과정에는 조리법 익히기 프로그램으로 편성한다.

장 담그기, 여러 가지 김치 담그기, 장아찌 담그기, 국 끓이기, 나물무치기, 마른반찬 만들기, 조림하기, 전부치기, 음료(화채, 식혜 등), 양념장 만들기 등

(나) 심화과정에는 상차림과 세시풍속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편성

3첩 반상, 5첩 반상, 7첩 반상, 9첩 반상

(다) 장 담그기 과정을 별도로 편성 한다.

메주 쪄기, 메주 띄우기, 고추장 · 된장 쪄기, 엿기름 띄우기, 등

(라) 가양주 만들기, 한과 만들기 반은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 희망자가 이수하도록 한다.

(마) 식사예절을 병행 교육한다.

(2) 예절 분야

(가) 경어 익히기

우리나라 경어는 그 쓰임이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올바른 경어 사용은 반드시 익혀야 할 덕목이므로 반드시 편성한다.

(나) 예절 익히기

절하기, 문안 올리기

(다) 호칭 익히기

일가친척 사이의 호칭은 비단 이민자 가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
는 하나 필요한 과제이다.

(3) 음악과 춤 분야

(가) 기초과정에는 장구 장단 익히기와 민요 부르기, 우리 악기 알기 과정을 편성한다.

(나) 심화과정에는 풍물, 사물놀이, 각종 춤과 탈놀이 등을 운영한다.

(다) 특히 민요 교육 시에는 조상의 삶에 대해 알린다.

두레, 동제, 장승제 등

(4) 문화재 알기

박물관 중심으로 문화재 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는 별도 편성 없이 각 분야 프로그램
운영중 관련 문화재 견학, 또는 박물관 견학을 병행 운영한다. 세시풍속 프로그램에 민속박물관
견학 프로그램을 포함 시킨다.

(5) 놀이 분야

(가) 철에 알맞은 놀이를 갖고 있던 민족의 전통놀이를 익히는 프로그램 편성.

겨울철- 팽이치기, 연날리기 등

(나) 별도 프로그램 편성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놀이 형식으로 편성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 놀이 기구를 직접 만들어 쓰도록 한다.

(6) 공예분야

(가) 아가자기한 공예 문화를 접하며 삶의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한다.

(나) 다양한 짚공예를 통해 한국의 전통적 농촌 삶에 대하여 알아간다.

(다) 전통한지공예 작품 중에서 아주 초보적인 몇 가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국생활
의 외로움과 갈등을 문화로 풀어본다.

(라) 전통 자수나 바느질 공예를 배우면서 한국 여성들의 가사노동과 삶의 애환 등에 대하여 배워본다.

(마) 유료의 심화과정 편성 필요가 있다.

(7) 역할극 놀이

위의 모든 과정 중간 중간에 역할극 놀이를 도입하여 자신들의 변해가는 과정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편성 한다.

6. 결론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단순하고 평면적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가 자신의 또 다른 고향이 되어 간다는 소속감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심적 갈등을 순화시키고 다잡아 갈수 있는 정서적, 심리적 자존심을 가질 수 있다.

Reference

- [1] J. S. Han, W. P. Hong,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012), Vol.25, No.3, pp.207-233.
- [2] J. H. Na, Social Studies Education. (2011), Vol.50, No.4, pp.117-133.
- [3] J. S. Kim, Law Review, (2012), Vol.48, pp.27-48.
- [4] National cultural infrastructu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 [5] D. S Rychen, L. H Salganik, key competencies Hogrefe and Huber. (2003).
- [6] D. H Park, Yetteo folk museum. (2008).
- [7] T. Y. Hong,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2011), Vol.4, No.2, pp.5-34.